

 <b>보건복지부</b>	<b>보 도 참 고 자 료</b>			
배 포 일	2020. 5. 28. / (총 12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홍 승 령 장 태 영	전 화	044-202-3575 044-202-3576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과 장 담 당 자	한 성 수 황 현 주	전 화	044-201-4006 044-201-3786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홍보팀	팀 장 담 당 자	이 경 진 김 문 희	전 화	044-202-2023 044-202-20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격리지원반	팀 장 담 당 자	이 병 철 전 종 형	전 화	044-205-6511 044-205-65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물류시설 방역 점검 추진계획,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17개 시·도와 함께 △물류시설 방역점검 추진계획 △의료인 응원캠페인 진행 상황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시설 관리 강화와 생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고위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밀집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1 물류시설(택배 터미널, 물류창고 등) 방역 점검 추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 유통물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운영상황이 유사한 주요 물류시설(택배 터미널, 물류창고 등)에 대해 방역 점검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정부는 지난 2월부터 택배업계를 대상으로 △방역지침(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시달 △현장 점검(총 6회) △공적 마스크 배부(17만 장, 6개사)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시행해 왔다.

- 이번에는 최근 물류시설 내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택배업체 외에 **영업용 물류창고까지 포함한 방역 강화 정책과 현장 점검**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우선 물류시설의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택배업계 및 물류창고 관리자가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별 명부와 연락처를 작성하도록 한다.

-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마련한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지침\*(사업장·대중교통 분야)’을 각 사업장 관계자가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한다.

\* △작업 중 마스크 착용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출근 자제 △실내 2m 이상 거리 두기 △작업장 환기 △손 소독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 등

-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본부) 논의를 거쳐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물류시설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할 예정(5월 29일)이다.

○ 또한 택배 터미널, 물류창고 등 주요 물류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 점검대상 : 전국 영업용 물류창고 1,321개, 택배 터미널 84개

\*\* 점검내용 : △방역지침 준수 △질병의심환자 대응체계 △출입자 명부 작성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연락망 △방역물품 구비 △종사자 위생관리 등

- 앞으로 일주일(5월 29일~6월 4일) 동안 시설물 관리자가 국토교통부 방역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 향후 2주간(5월 29일~6월 11일) 지방자치단체별 점검과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 특히 합동 점검 시에는 수도권 대형 물류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종사자 위생관리 등을 조사한다.

○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와 현장점검 내용을 종합 고려하여 '물류시설 방역지침'을 보완한 후 추가 배포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물류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물류시설 방역점검이 해당 시설의 방역 관리상의 조치 사항을 보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2 의료인 응원캠페인(#덕분에챌린지) 진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온라인 국민참여 캠페인)'를 추진 중이며, 5월 27일까지 캠페인에 동참한 실적은 최소 33,24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인스타그램 내 #덕분에챌린지로 검색된 수집 기준으로, △#덕분에챌린지 33,242건 △#덕분에캠페인 16,411건 △#의료진덕분에 25,021건 △#thankstochallenge 2291건

○ 특히 유명 인사들의 참여에 따라 국내외 팬들도 팬클럽을 중심으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 배우 박해진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각국 팬들의 참여를 독려했고, 아이돌그룹 크나큰(KNK)은 팬클럽을 지칭하는 캐릭터(팅커벨)를 지목하여, 참여를 독려했다.

- 최근에는 한류스타(스트레이키즈 멤버 '한')의 팬클럽('STAY') 지목에 따라 약 580명(5.26일 기준)의 해외 팬들이 공통 해시태그(#staythankstochallenge)와 함께 동일한 템플릿 디자인을 만들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 한편 기업에서는 기부 형태의 캠페인 동참을 활발히 하고 있다.

- △스타벅스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를 대상으로 커피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은 의료인·의료봉사자를 대상으로 열차 무료 이용권 △SPC그룹은 질병관리본부에 빵·생수 △신한금융은 의료진들과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 의료용품과 생필품 등을 지원하였다.

○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을 보여주는 단체 퍼포먼스나 장비 등을 활용하여 수어 동작을 표현하는 등 규모감 있게 캠페인에 참여 중이다.

- 공군과 해군은 전투기, 해군함정과 함께 의료진 응원·감사 메시지를 전달하고, △육군은 하트모양 △소방서는 119를 형상화(구급차 활용)하여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 정부는 국내 의료진과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사진을 활용해 의료진에 대한 존경과 감사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 카드뉴스”를 인스타그램 공식 채널에 제공하고 있으며, 5월 20일 기준 100개 이야기가 게재되었다.

			
어린이 참여(5.20)	가족 참여(5.21)	의료진 화답(5.25)	수중다이버 참여 (5.27)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덕분에 배지에 이어 5월 21일부터 온라인 상(인스타그램)에서 활용 가능한 ‘덕분에 챌린지’ 스티커를 제공 하고 있다.

- ‘덕분에 챌린지’ 스티커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실행(프로필 아이콘 클릭)하여 해시태그(#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덕분에캠페인, #thankstochallenge) 검색을 통해 스티커 선택 후 사진, 이미지 등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붙임 1】 ‘덕분에 챌린지’ 스티커 사용 방법

### 3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홍보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5월 2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 7,034개소 △이·미용업소 2,049개소 등 총 41,300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출입자 마스크 미착용, 이격 거리 미준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699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부산시에서는 음식점 85개소를 점검한 결과 모두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경상북도에서는 명예 위생감시원이 미용업소를 방문하여 소독지시 등 88건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53개소 △학원·독서실 14개소 △실내체육시설 7개소 △PC방 4개소 등 128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 점검과정에서 학원에서 마스크를 미착용(대전)한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PC방 내에서 거리 두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전북)를 발견하여 시정요구 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214개반, 1,378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8,293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5,168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3,125개소 중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1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 정부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수칙을 일상생활 속 모습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대표 영상을 제작하여 국민의 적극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 이를 지상파·종편 등 TV광고, 버스·지하철 등 옥외매체와 긴급 재난문자\*(81회), TV 자막방송(3회), SNS 홍보(1,916회)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 \*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 가족 등교/근무 중단 및 진단검사 요청 △외식 에티켓(음식 덜어 먹기, 떨어져 앉기, 큰 소리로 말하지 않기 등)

####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 5월 27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3,32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71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617명이다.
    - 2,513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348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5월 27일 18시 기준 대비 165명 증가하였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85개소 2,99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679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5.27일 입소 103명, 퇴소 105명, 의료진 등 근무인력 372명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안심 밴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격리자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을 개발하여 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5월 27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설치율은 93.3%이다.
  - 어제(5월 27일)는 무단이탈자가 없었으며,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74명이며, 이 중 58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6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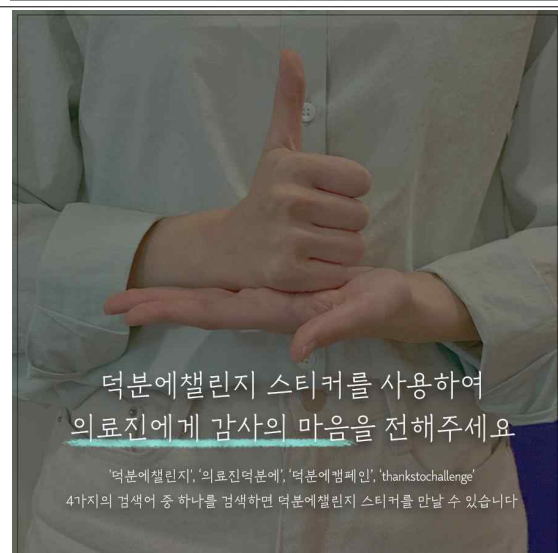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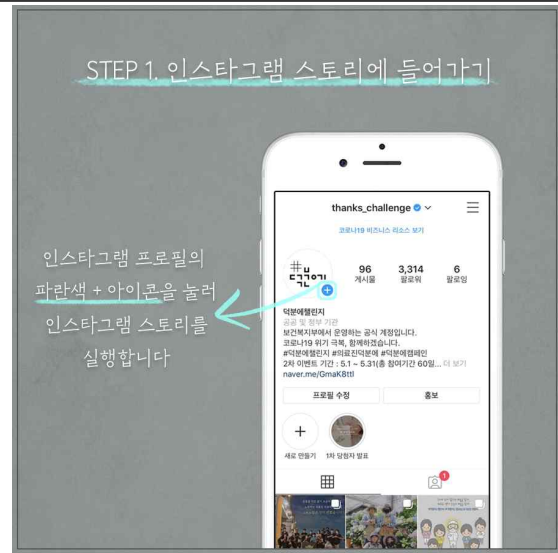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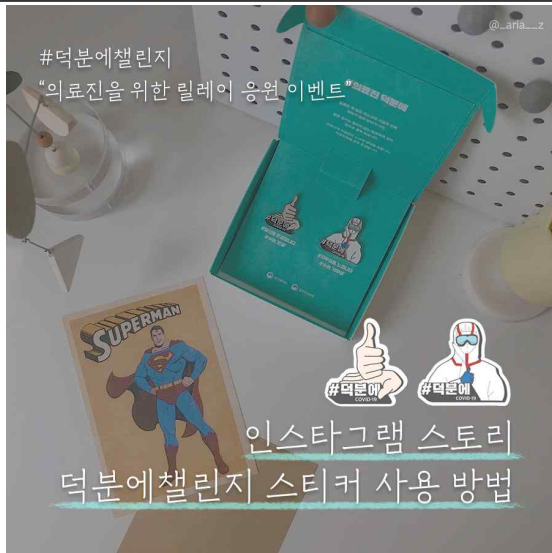
- < 붙임 > 1. ‘덕분에 챌린지’ 스티커 사용 방법  
2. 감염병 보도준칙  
3.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법  
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붙임 1

‘덕분에 챌린지’ 스티커 사용 방법



## 붙임2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술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붙임3

##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